

이러한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의 위치는 태양, 행성 등 다른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미세하게 변한다. 현재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은 약 0.017인데, 일정한 주기로 이심률이 변한다.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더 작아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지며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지게 된다. 이는 달의 공전 궤도 상에 있는 근지점과 원지점도 마찬가지이다.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천체의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커지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헉... 이심률 바뀌는 거냐

지구 궤도 이심률... 달보다 작네
여 중요해 보인다

이심률 ↓ →월에 가까워짐

→ 먼 부분은 더 가까워지고 가까운 부분은
더 멀어지는군

이심률이 커질 때는 반대 겠다

이번에는 요약 없이 바로 가죠!
여차피 요약해도 그냥 정보 나열일 텐데

아니다 너무 나태한것 같아...

요약 할게임

1. 달은 지구를, 지구는 태양을 타원
궤도로 돈다.

2. 이심률이 ↓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져서
원일·원지점을 가까워지고 근일·근지점은 멀어진다.

3. 태양-지구-달 일 때 근지점이면 슈퍼문
태양-달-지구일 때 " 개기일식

4. 각 지름은 거리가 작을수록 커짐!

요약 끝난 듯요... 중요 정보만 알차게 담음

문제 풀죠

25. 뒷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태양의 인력으로 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약간씩 변화될 수 있다.
- ② 현재의 달 공전 궤도는 현재의 지구 공전 궤도보다 원 모양에 더 가깝다.
- ③ 금환 일식이 일어날 때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각지름은 달의 각지름보다 크다.
- ④ 지구에서 보이는 보름달의 크기는 달 공전 궤도 상의 근지점일 때보다 원지점일 때 더 작게 보인다.
- ⑤ 지구 공전 궤도 상의 근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은 원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보다 더 크다.

이런 문제 풀 때 팁이라면

추상적? 약간 애매? 한 선지는 대충 넘어가고
구체적인거(참 거짓 바깥리 나오는것) 먼저
판단하시면 시간 절약이 잘 됩니다.

① 그런가...? 그렇지 같은데!

② 음, 이심률이 지면에 구체적 수치로 나온 이유가...
이거 옳군... 이심률이 더 큰 달이 더 타원스러운데?
요게 정답!

③ 그렇지, 그러니까 금환일식이 일어나서
태양이 달에 다 안가려지지

④ 너무 당연 ㅎㅎ

⑤ 이것도 당연, 가까우면 각지름 크지요

여백이 부족하다!!!

페르마처럼 생략하고 싶지만 풀어야 겠죠

다른 말 좀 하자면

솔직히 이렇게 괜히 안해도 문제는 풀립니다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고 푸셔도 되요

석호쌤의 말씀을 버리자면

국어 문제 공부에서는 자신이 놓치며 읽을 수
있는 detail 들을 다 잡으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아야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속도와 정확성을 노리고 푸셔야요

어떤수를 쓰더라도 문제라도 더 맞출것다는
각오로 빠르고 간결한 정보 파악을 통해 푸셔야 합니다.